



동화고 삼각학교

3/4
2015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OURNAL 건축가
ARCHITECT

전시 | 최소의 집



최소의 집은 작은 집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집도 아니다. 그렇다면 아주 싼 집일까? 그 <최소의 집>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처음부터 기획자의 몫이 아니었다. 집이 가지는 수많은 가치들 중 그 크기와 비용에 한정 지어 생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최소의 집>의 출발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변진 다양한 집짓기 열풍을 엿보면 오래 전 해외에서 한 때 유행했던 집의 유형을 버섯이 가져와 어떻게 집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0억으로 내 집짓기'와 같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통해 제한된 경제적 환경을 극복해야만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작금의 현상 속에서 결국 대중과 건축가 사이의 '집'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우선적으로 좁혀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집의 크기와 비용은 상대적이다. 그러니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로 어떤 이들에게는 아담한 집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비싸다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적당한 금액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조차 각자가 적정하다고

느끼는 공간이나 경제적 관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각자의 경제적인 규모에 맞는 크기와 비용으로 집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남들과 비교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선 크기를 늘려놓고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을 소유하기 위한 방식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획일적인 평수에, 심지어 방 개수 까지 똑같은 복제공간 안에서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은 외면당한 채 깊이 병들어 오고 있었다. 오래 전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그 지독한 병을 언급한 걸 보면 이 병의 전염성은 상당히 강한 듯하다.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되어 버린다. 따라서 아파트에서의 삶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 없다. ... 아파트는 이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기의 뛰어남을 확인하는 전시 공간이 되었다. ... 더 새롭고 더 넓은 아파트로 가려는 아파트 주민들의 병은 아주 고치

기 힘든 것이다. 나도, 내 아내도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아이들에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회색 시멘트와 잘 정돈된 가로수뿐이니까.'

-알고 보니 아파트는 살 데가 아니더라, 김 현, 뿌리 깊은 나무(1978.9)-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듯, 진정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ed)이 필요한 세상이며 집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간 다양한 옷을 만들긴 했어도 화려한 외양만을 갖춘 옷이나 잘 만들었어도 웬지 '입는 자'를 위한 옷이 아닌 '만드는 자'를 위한 옷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우린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옷을 사는 방법, 즉 집을 소유하는 방법론이다. 오래 전 경제학자 엥겔스는 돈을 만들어 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노동자에서 농노 이하의 지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과거엔 주택을 소유하기 보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임대비를 지불하며 사

는 것을 당연히 받아 들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1937년 연방 주택국이 설립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주택난 해소와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재해를 벗어나기 위해 '주택론(loan)시스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저 소득층을 위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평생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러한 '소유 방식'은 앞서 엥겔스의 언급처럼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일을 해야만 하는 현대의 농노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현 경제상황 아래의 우리의 주거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개발환경에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여전히 은행의 장기 대출에 의존하여 집을 소유하는 방식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주거환경에서 필자는 서두에 언급한 그 '최소'라는 가치를 통해 최소한 각자의 경제규모에 따른 삶의 방식에 맞는 적정 공간이란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적 선택이 요구되며, 라이프스타일(lifestyle)에 맞게 가변화 될 집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건축

가와 대중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 고민의 출발은 다름 아닌 일상 속 작은 가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기존 '소유방식'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공간의 점유에서 시간의 점유로 바뀌어야 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다양한 집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최소의 집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궁극적인 가치인 셈이다.

참여 건축가와 '최소'의 정의

<최소의 집> 전시는 2013년 10월 인사동, 돌실나이 사옥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온 그라운드에서의 네 번째 전시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5년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매년 마다 2회씩, 각 회마다 3인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그들의 완공작 또는 완공예정작을 선보이고 동시에 공동된 전시 주제인 '최소'를 각자 정의하고 그 대안모델, 단 실제 구축이 가능한 주택의 전시를 통해 폭 넓은 대중과의 만남의 기회를 모색하는 장기적인 전시이다.

첫 번째 전시에 참여한 건축가 임형남, 노은주는 가로, 세로, 높이 3m의 박스를 목적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간결하고 똑똑하고 무겁지 않은 재미있는 상자인 퍼펙트 박스를 제안하였으며, 건축가 김희준은 '방'을 최소의 집의 시작이라 정의하고 방은 집을 조직하는 기본인자로서 채워진 곳이 아닌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생성하도록 비워진 곳이라 정의하였다. 필자는 6×6 주택을 통해 최소한의 기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기능과 더불어 건축 이후 거주자가 의외공간을 발견하여 스스로 영역을 정의하거나 능동적 선택으로 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주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이 반영된 집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전시부터는 참여 건축가 3인 중 반드시 한 명은 드러나지 않은 자로서 자신만의 작업을 묵묵히 해오고 있는 숨어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여 대중에게 선보이는 중요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전시에 참여한 건축가 고기웅은 최대의 집 vs 최소의 집을 통해 우리가, 서울 시민 한명이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을 사용할지 않고 얻을 수 있



는 최대면적을 제시하고 그 면적 안에서 주거의 최소기능을 제외하게 되면 그 나머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했으며 건축가 정의업은 현대 주거공간의 특이점 중 하나인 발코니 공간을 통해 보너스가 아닌 집을 구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주목하여 하나의 실은 하나의 발코니를 가지고, 한집은 발코니들의 성격으로 규정되게 되는 이른바 최소의 요소가 전체를 만든다고 정의하였다. 건축가 장지훈은 큐빅 모델을 통해 구조와 기능으로 구성된 플랫폼과

사용자에 따라 복제, 변형 될수 있는 최소의 단위 큐빅으로 구성된 일종의 하드웨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운영체계(OS)는 제도를 통해 실현가능하며 실현의 전제는 최소의 가치라 정의하였다. 인사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시를 끝으로 세 번째 전시는 서촌의 온그라운드로 자리를 옮겨 전시를 이어갔다. 세 번째 전시 때부터는 전시 주제인 '최소'의 의미 확장을 위한 부제(SUBTITLE)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부제는 '유희영역을 찾아서'이었다. 이것은 도시적 맥락



에서 유희 공간이 존재한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내부 공간 안에 소외되고 버려진 작은 영역의 발견을 통해 그것을 '유희영역'이라 정의하고 <최소의 집> 전시기능으로 사용하되 기존 기능과 서로 균형을 잃지 않게 만들어 전시장이었던 온그라운드 장소에서 소외된 영역을 찾아 전시를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전시에 참여한 건축가 박창현은 면적이나 부피는 넘겨주지 않지만 작은 공간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1인 가구의 면적의 확장



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건축가 OBBA는 나를 바라 보는 삶, 즉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무엇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나를 위한 집을 최소의 집이라 정의하였다. 건축가 임현진, 이도은은 현재 그들이 주거점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한옥을 선택하여 그 공간 안의 흐릿한 경계와 중첩된 공간속에서 작은 움직임 발견하였다. 2015년 3월 네 번째 전시 역시 서촌 온그라운드에서 열렸으며 부제는 '외판방'이었다. 여기서 의미하는 '외판방'은 각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소외된 장소와 버려진 물리적인 공간일수도 있고, 심상오로만 남겨진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독백의 방'일수도 있다. 기존에 비어있는 '부재(absence)의 방'일수도 있고 부재가 되어갈 방, 즉 '무화(無化)의 방' 일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과거에 버려진 기억의 흔적이 담긴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민이 남아 그것들을 들추어 낼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있으리라 생각되었고 그 외판 방을 각자만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첫 번째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건축가 모두가 텍스트, 드로잉, 컨셉 모형, 영상, 사진 등으로 부제 전시를 함께 하였다. 네 번째

전시에 참여한 건축가 권경은은 일상의 바람과 거리를 두고 만들어져 가는 최소란 소유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고 건축가 권현효는 작은 집이 나무를 담는 큰 화분이 되고 그러한 집들이 늘어나 도시가 좀더 푸르려졌으면 하는 바람과, 나눔은 최소한의 층층을 제외한 마음과 물질의 잉여를 전제로 한다며 나무와 집을 통해 최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가 박종민은 농가에서 볼수 있는 오래된 창고나 빈집의 벽들을 헐지 않고 벽안쪽에 시간과 기억을 품는 '작은 방'을 두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소의 집 전시는 장소후원을 제외하면 기획 주체나 참여자 모두가 스스로 발로 뛰고 전시 비용 일체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한 '최소'라는 가치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전시만을 위한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최소'의 다양한 정의를 고민해줄 건축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 '완공작'이란 참여 제한을 '완공예정작' 혹은 '완공가능작'으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가 또 다른 변수로 중단된 프로젝트까지

열어 놓을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가 선정에 있어서도 집의 규모뿐 아니라 최소의 공법, 최소의 재료, 최소의 구조 등 건축가가 설정한 초기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범위를 확장 시킬 계획이며 건축가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론가, 비평가의 폭 넓은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결국 <최소의 집> 전시는 우리 사회의 제한된 주거의 물리적, 경제적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공간의 크기를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자신의 규모에 맞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까지 반영된 집을 찾게 해주는 가이드의 역할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갖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정영한 스튜디오 아키희릭 대표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스튜디오 아키희릭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장기 기획전시인 '최소의 집'의 총괄전시기획을 맡아 이시대의 젊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최소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경의를 통해 대중과의 사이를 채워나갈 공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더 라이트 컨테이너(The light container, 2003), 더 쉐이드 컨테이너(The shade container, 2005), 보이지 않는 벽 (Invisible wall, 2007) 등이 있으며 최근 작품인 인사동의 '체화의 풍경 (POROSCAPE, 2011)'은 일본의 JA+U 및 이탈리아 매거진 AREA 129에 게재되었고 '2013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9X9 실험주택' 역시 국내 건축 전문 잡지인 SPACE. 공간지 (2013. 11) 외 영국'FRAME'등 해외 여러 사이트에 소개되었고 2014년에는 '6X6주택'으로 김수근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김수근 프리뷰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현재 광운대학교에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